민주, 대장동 국감 이재명 총력 엄호

TF 첫 가동 "국힘 게이트" 역공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사람"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른바 '대장동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엄호하는 한 편 야권과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 의혹에 대한 공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처음 가동한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장 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 는 전 현직 의원과 전직 대법관 등이 도둑 장물 나 눠 먹다가 들통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날마 다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 는 이어 "국민의힘 토건 세력과 비리 법조인단의 부패 카르텔 맞서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그동안 고군분투했는지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너무 잘 했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돈 받은 사람 중 에 민주당 인사가 단 하나라도 나왔느냐. 모두 국 민의힘 또는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관련돼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토건 비리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화천대유 토건비리를 키웠다며 당시 수사 주임 검 사가 윤 전 총장이었던 점도 집중 파고들었다. 이 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이 맡았 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의 부 실 수사가 이뤄졌다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고리로 윤 전 총장을 겨눈 공세도 이어졌다.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 규명 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명 백히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선거 개입"이라며 "윤전 총장이 막강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 ·가족·측근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던 행태를 하나하 나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황운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김학의 무

혐의와 다를 바 없는 뻔뻔한 사건 덮어주기"라며 "언젠가는 김학의 사건처럼 세상에 실체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재직 시절 징계가 정당 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대통령 후보는커 녕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발사주의혹, 국민의힘 토건비리게이트 모두 윤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 는 대형 스캔들의 중심에는 왜 빠지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첫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과 송영길 대표, 소병철 부단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당·정·청회의 대선전까지 안 연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칫 휘말릴 수 있는 선거 중립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회의체 활동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 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대체공휴일)을 끝으로 대선 때까지 열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주로 총리공관에 서 진행됐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 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호승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출동해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야권이 부적절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 부동산 정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 정국의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조율을 거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몸집 불리기' 나서는 국힘 대권주자들

주호영, 윤캠프 선대위장 최재형, 홍캠프 본격 합류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 면서 캠프 간 세(勢) 대결에도 불이 붙고 있다. 최종 승리를 자신하며 몸집 불리기로 '대세론'을 군히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캠프 의 인재영입 전쟁이 특히 눈에 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이미 매머드급이다. 직함을 가진 참모가 250명에 육박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만 66명에 달한다. 17일에는 5선 중진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국 250여 개 당원협 의회 중 140곳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다른 캠프보다 훨씬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고 말 했다. 시선은 이미 본선에 가 있다. 캠프 좌장인 권성동 의원을 본부장으로 재외국민본부를 띄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당내 경선과는 무관한 재외국 민 투표에 벌써 공들이는 것이다. 본선 진출 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합류설도 캠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홍 의원의 'jp 희망캠프' 확장세도 만만치 않다.

애초 "줄 세우지 않겠다"며 인재 영입에 적극적 이지 않던 홍 의원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열린 캠프'를 표방하고 연일 신규 합류 참모 명단을 공 개해왔다. 최근 '박사모' 등이 속한 박근혜 전 대 통령 지지단체 총연합회의 지지를 얻어 윤 전 총장 과 차별화를 노리기도 했다. 특히 경선 경쟁자였 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까지 끌어내며 '확장성'을 과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러브 콜'을 마다하고 홍 의원을 택한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캠프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세에 기대감도 높 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중립 지대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홍 의원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세 대결 보다 수권 실력을 선보이는 데 에너지를 쏟는 모습 이다. '알짜' 참모들로 캠프를 꾸린 두 후보는 시 의성 있는 현안 발언으로 선명성을 부각하고, 짜임 새 있는 정책·공약 발표로 역량을 입증하는 데 방 점을 찍고 있다. 지난 15일 첫 1대1 맞수토론에 서 이례적으로 깊이 있는 정책 대결을 벌여 호평을 얻은 것은 두 '추격자'의 전략을 단적으로 드러냈 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브리핑

극단적 선택 1만3000명…심리분석 참여 미미

김원이 국회의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 3000명 이상지만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 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화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천 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 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을 차지했다. 다음은 경 제생활 문제 26.7% (3564명), 육체적 질병 18.8%



(2518명) 순인 것으로 나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 정되며,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자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부검은 사망 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전 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20대 이하 주택구입 3년새 14만건

김회재 국회의원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구입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국 정자료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 구입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 후 올해 8월 현재까지 14만1851건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층이 14만여건의 주택을 구입하 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35조537억원에 달했다. 20 대 이하 주택구입액 현황을 파악한 것은 김회재 의 원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주택구입액은 투기과열 지구 등 특정 규제지역에 한해 제출되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통해 분석돼 왔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의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가 신고된 전체 주택 거래에 대 한 현황을 파악했다.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와 구 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2019년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량은 3만

5270건, 구입액은 7조 7009억원이었다. 이후 2020년 6만1919건, 15조6479억원으로 확대됐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0대 이하가 주택 4만 4662건을 11조7048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는 6만6993건, 구입액 은 17조55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남대병원 간호사 65% 입사 2년내 퇴직

서동용 국회의원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 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54.5%, 2021년에는 54.4%에 달했다. 또한, 계속 되는 코로나19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병 원에서 요청한 간호인력 확대 요청을 정부가 제대 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부족 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확대와 적극적인 처우개선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2019년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376명이 부족했고,



2020년에는 239명, 올해 2021년에도 2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간

호사의 입사 후 퇴직까지 걸

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19

년의 경우 입사 1년 이내 퇴 직자의 비율이 34.9%였고 2020년에는 36.4%, 2021년에는 35.3%에 달했

다. 입사 후 1년을 버텼다고 하더라도 2년까지 못 버티는 경우도 많았다. 병원별로는 2020년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의 간호사 중 65% 이상이 입사 2년 이내 병원을 그만뒀고, 2021년에는 경북 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의 65%가 그만뒀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영자(600218-X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천변좌도42번설 18~4 (방립동) 과상후신 망 최영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장법원 2021는단985호로 신청하여 2021 년 9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지 및 수증자는 동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관신고를 하시기 바리 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6일 18일

2021년 10월 18일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송양임(360217-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회재로1293번길 7, 102동

피상속인 망 송양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

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

원 2021느단1054호로 신청하여 2021년 10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

2021년 10월 18일

702호 (백운동, 힐스테이트백운)

coupang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주간: 09:00 ~ 18:00 근무 시간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 주간: 192만 +@ 야간: 240만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광주 전 지역 운행 버스

급여

조건

복리

후생

업무

지원

자격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물류(입고, 출고, 재고)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상가건물, 다가구, 전원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건물

광주. 북구. 오치 4층 대384㎡(116평) 건물 연998㎡(302평) 아파트 집단사거리코너 먹자골목 주도로 단층6개 점포 상권 최상 보1억8천만원 월6백4십만원 매입 후 월세 상향 조정가 매16억5천만원

2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유럽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포장 배수시설 됨. 남향 경관수려 교통요지 시장인접 토지4,220㎡(1,276평) 매㎡ 6십 5만원

3 전원주택내, 10여채 단지조성용의, 선산묘터 가능

-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 산자락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외벽. 적벽돌. 2층연 129㎡(39평) 소형 승강기 설치
-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품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 전원주택 단지 선호지 10체 조성 가능 • 본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묘지 조성가 경관 수려한 숲 속 매 7억
- 4 전원주택용 토지와 식재된 정원수 20년생 8종 2천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년생 외 7종 2천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m² 8만원

5 임야. 휴양림 30년생 편백 1만주 마을 변방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 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3,000평) 구내 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자 휴양자 최상 m² 6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 010-3454-2389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 가격 **40,000원** 가격 **25,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13,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제일건강 010-7510-2000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탑에너지농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 회사 대양일렉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1년 10 월 14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 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 530조의 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 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는 본 공고게재익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 회사에 이 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0월 18일 "갑" 주식회사 탑에너지농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로 7, 3층

(효자동3가) 대표이사 정상수 주식회사 대양일렉콤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6로 59(수성동)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윤봉수[781126-1XXXXXX, 2021년 6월 9일 사망,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대표이사 이현숙

15, 201동 303호(흑석동, 수완2단지 중흥에스**-**클래 스)]의 법정상속인 1. 김외선 2. 윤가인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고자 광주가정법원 2021느단871호로 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여 2021 년 10월 12일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윤봉 수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 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 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한정상속인 : 1. 김외선 2. 윤가인 친권자 모 김외선

채권신고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15, 201동 303호(흑석동, 수완2단지 상속인 1. 김외선

• 상속인 : 양철승(630502-XXXXXXX) 광주 광산구 수등로123번길 21, 104동 203호(신가동, 수완지구호반베르디움 1차아파트)

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 2021. 10. 18. ~ 2021. 12. 2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양철승의 주소



10월24일(일)

▲광주kj산악회 10월24일(일) 오 대산 노인봉&소금강계곡 선재길, 7794 6920

상원사, 월정사 트레킹 산행, 염주 체육관 04:30, 동아병원 04:35, 롯 데백화점 04:40, 광주역 04:45, 문 예후문 04:55, 비엔주차장 05: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